

# 뿌리작물 작황 고르지 못해 시세 “들쭉날쭉” 산수유값 큰 폭 하락, 향부자도 소폭 내림세

지난 11월 하순 접어들면서 소폭 오름세를 보이던 국산 한약재 시세가 햇것 출하가 마무리 되어가는 12월 말 접어들면서 다소 내림세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국산 한약재의 생산량, 또는 재배면적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올 약초농사는 뿌리작물의 경우 전반적으로 작황이 고르지 못한 편이다. 특히 하수오의 경우 지난 여름 태풍을 동반한 수해 피해로 단보당 수확량이 크게 감소, 재배면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물동량이 귀한 실정이다.

향부자도 햇것 출하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던 11월 말 경 3천5백원 선까지 떨어졌다 불과 몇일 사이에 2.3천원 폭으로 가격이 경총 뛰는가 싶더니 다시금 소폭 내림세 경향을 보이고 있는 12월말 현재 근당(6백g기준) 5천원 선에 도매거래 되고 있다.

‘제2의 IMF’라는 말이 떠돌 만큼 경기 부진한 가운데 식품으로 대량 반입된 수입약재들의 공세로 국산 약재 시세는 다소 주춤한 상황이거나 전반적으로 들쭉날쭉 자리잡지 못한 상황. 이외에도 물량부족이 예상되는 일부 품목들을 미리 선점해 놓고 시세폭등을 부추기는 일부 장사꾼들의 사재기가 국산 한약재 시세 등락폭에 적지않게 영향을 주는 변이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1만8천원 선까지 오름세를 보이던 구기자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가 12월 말 들어 다소 떨어진 1만4천~1만6천원(청양산) 선에 도매 거래되고 있다. 생산시기에 농협에서 1만9천원 선에 수매한 바 있는 진도산 구기자는 시장 내에서도 1만8,9천원 선으로 여전히 상보합세. 작황부진 영향으로 출하가 마무리되어 갈 즈음해서는 다소 오름세가 전망되기도 했던 구기자 시세가 경기 부진과 식품으로 반입된 수입산 영향으로 다소 주춤한 상황이다. 수입 구기자는 현재 근당 1천5백~1천7백원 선에 유통되고 있다.

**당귀** 12월 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토당귀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6천원(통)선, 절품은 근당 7천원 선이다. 11월 상순경 햇것 출하와 함께 근당 5천원 선으로 떨어지는 가 싶던 당귀 통자 시세가 일부 장사꾼들의 사재기로 일시적 상승세를 타 중순경에는 7천5백원 선까지 올랐으나 하순경 다시 거품이 빠지면서 시세도 다소 하락, 6천5백원~7천원 선을 유지하다 12월 말 들어서는 5백~1천원 폭으로 시세가 더 빠졌다. 올해 작황은 평년작으로 당귀시세는 다소 하락세 예상되고 있다.

**독활** 독활은 최근 몇 년 전부터 재배면적이 급격히 줄기 시작, 그 영향으로 올해도 약재용으로 출하된 물량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9월 말경 근당(6백g기준) 5천5백원 선까지 상보합세 유지하던 독활이 햇것 출하기에 접어들면서 다소 하락, 12월 말 현재까지 4천5백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 올 수확 물량이 별로 없어 출하가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독활 시세는 근당 5천원 대로 다소 상승세 보일 것이라 전망이다.

**맥문동** 12월 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맥문동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청양산이 8천~9천원(거심), 6천3백~7천원(막막) 선으로 11월보다 다소 하락세. 밀양산은 거심이 1만1천원, 막막이 8천원 선으로 물동량 부진한 가운데서도 보합세 이루고 있다. 올 맥문동 물동량은 남아

돌 만큼 풍족한 상황이라고. 시세도 당분간 약보합세 보일 전망이다.

**백지** 지난해 11월 경 수급조절품목으로 반입된 수입백지 45톤이 시중 유통되면서 지난 9월 말 근당(6백g기준) 6천원 선(절)에 거래되던 국산 백지 시세가 11월 경 근당 4천5백원 선으로 대폭 하락, 12월 말 현재도 보합세 이루고 있다. 그러나 물동량이 그리 많지 않은 관계로 조만간 백지 시세는 근당 5천원 선을 넘어설 것이라 예측도 나오고 있다.

**산수유** 몇 십년 만에 찾아온 풍작으로 지난 9월 말까지만 해도 근당(6백g기준) 5만5천원 선을 넘어서던 산수유 시세가 햇것 출하기에 접어든 지난 10월 말경부터 1만2천~1만3천원 선으로 대폭 하락했다. 12월 말 현재 시세는 더 떨어진 1만1천원(상품), 9천5백원(중품) 선에 도매거래 되고 있는 상황. 그간 지지부진했던 국산 산수유 수출도 올부터 다시금 활기를 되찾고 있다. 올 산수유 풍작으로 중국산과 가격차가 많지 않은데다 품질이 뛰어난 국산 산수유가 일본에서 인기가 있기 때문. 일본과의 수출계약으로 산지인 구례군 산동농협에서는 11월 말경

1만2,3천원 선에 국산 산수유를 수매하기도 했다. 올 생산량이 대폭 증가했다고는 하나 재고량이 없는 관계로, 또 지난 여름 동안의 폭등세를 감안하면 산수유 시세는 조만간 다시 오르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지만 올 봄 산수유 꽃이 피기 전까지 당분간 상승세는 없을 것이라 분석이다.

**오미자** 올 오미자 수확량은 지난해 보다 다소 증가하기는 했으나 전체 오미자 생산량의 70%에 달하는 물량이 생것(근당 5천원) 상태로 소진되고 있는 추세여서 실제 한약재로서의 오미자 생산량은 극히 소량에 불과한 실정. 때문에 12월 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오미자 시세도 근당(6백g기준) 2만3천~2만5천원 선으로 상보합세다. 전북 장수군 등 산지에서는 얼마전까지 근당 2만2,3천원 선에 거래됐으나 물량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더구나 중국산 오미자도 사재기 영향으로 값이 폭등, 근당 5천5백원 선까지 거래되고 있다.

**작약** 12월 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의상산 상품이 6천원, 하품은 4천원 선으로 11월과 보합세. 호남산은 상품이 근

당 5천원, 중품은 4천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재배면적 감소로 올 수확량도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간의 재고물량이 다 소진되지 못한 영향으로 햇것 물동량은 그리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당분간 약보합세 유지할 전망이다.

**천궁** 일천궁은 지난해 재배면적이 상당량 증가한데다 작황도 평년작으로 생산량은 예년비 40%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종자 채종량이 많아 실제 생산 증가량은 20% 포인트에 이를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햇것 출하가 거의 마무리된 11월말경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근당(6백g기준) 7천5백~8천원(절) 선까지 도매거래되던 일천궁이 12월말 현재는 5백원 폭으로 하락한 근당 7천원선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토천궁도 지난 11월말 시세인 1만8천원(절) 선보다 다소 하락한 1만6천5백원(절) 선이다.

**백하수오** 작황부진으로 물동량이 귀한 하수오 시세가 지난 9월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9월 말경 근당(6백g기준) 5천5백~6천5백원 선에 거래되던 하수오가 11월 말경엔 7천5백~9천5백원 선으로 상승, 12월 말 현재는 근당 1만원 선까지 경총 뛰었다. 영주농협 등에서 국산 백하수오를 특대 1만~1만1천원, 중품을 8,9천원 선에 수매한 데다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인들 역시 하수오를 쉽게 내놓지 않고 있어 시세는 당분간 상보합세 유지할 전망이다. (문정희)

**건강** 산지에서 생강 값이 100kg당 50만원을 호가하고 있는 관계로 생강 출하량이 거의 없는 상황. “생·건 비율이 8대1인 건강의 경우 생강 값이 100kg당 20만원을 넘어서면 건강 출하량이 거의 없다”는게 산지인의 설명이다. 일부 재고물량이 다소 있긴 하나 그마저도 물량을 내놓지 않고 있어 건강 값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1월 근당(6백g기준) 3천8백원 선에 도매거래되던 건강이 12월 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4천8백원 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당분간 상보합세 보일 전망이다. 중국산 생강도 100kg당 20~30만원 선으로 상보합세. 건강은 근당 3천5백원 선이다.

**구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물동량이 그리 많지 않은 관계로 지난 11월 말 경 출하시기 임에도

감초를 비롯한 향신료로 사용되는 일부 약재들의 오름세를 제외하고는 수입한 약재의 경우 전반적인 보합세 경향. 국내 생산량이나 물동량의 영향을 받아 다소 상승세를 보이는 품목들은 구기자, 결명자, 목단피, 반하, 오미자, 백하수오 등이다. 특히 오미자와 백하수오는 상승폭이 그중 두드러지는 품목들.

중국내에서의 매점매석으로 근당 2천5백원 선이던 오미자가 12월 말 현재 근당 5천5백원 선으로 무려 두배나 뛰었다. 백하수오도 국산 시세 폭등 영향으로 근당 5천원 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작약, 황금, 용안육, 공사인 품목들의 경우 국내

유통시세는 다소 하락했다. 지난 11월 말경 3천5백~4천원 선이던 1호감초는 다소 시세가 빠져 12월 말 현재는 근당 3천원선이며, 용안육도 근당 3천원 선에서 1천원 폭으로 떨어진 2천원 선에 도매 거래되고 있다. 공사인도 4천2백원에서 4천5백원 선으로 다소 빠졌다.

목단피는 근당 2천8백~3천원 선에 유통되던 수급조절품목이 어느 정도 소진된 11월 하순 들어서면서 다소 오름세, 12월 말 현재 근당

3천5백원 선에 유통되고 있다. 2월 중 반입될 예정인 수급조절용 270톤이 풀리면 시세가 다소 빠질 전망이다.

목단피 외에도 오는 2월 중 수급조절용으로 수입될 한약재는 시호 100톤, 향부자 200톤 등이다. 이중 시호는 생산시기인 점을 고려, 국내산 전량 수매조건으로 반입된다.

한편, 수급조절품목으로 묶여 수입이 제한된 품목으로 알고 있던 원방풍이 지난해 처음으로 식품원료로 수입됐을 당시 근당 9천원이라는 높은 시세에 국내 유통됐으나 법의 틈새를 알고 너도나도 들여오는 수입업자들이 많아지면서 원방풍 시세도 이제는 1천3백~1천5백원 대로 크게 떨어졌다.

## 국산 시호 수매조건 100톤 수입